

보도시점 2026. 9. 16.(수) 배포시점 배포 2026. 9. 16.(수) 회의 종료 후

‘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 공적 책임 강화 및 평가 실효성·형평성 높이기 위한 규칙 개정안 보고 -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신설 등 방송평가 항목과 척도가 개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 및 척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202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될 이번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방송사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공정성 관련 방송사 내부 회의체 운영에 대한 평가 척도를 회의 개최 횟수, 책임자 참석 여부, 회의 결과 사내 공개 여부, 논의 결과 이행 여부 등으로 구체화해 실질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 또는 채널 공정성에 대한 시청자 인식 조사도 실시해 시청자의 인식을 반영·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실확인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팩트체크 체계 및 오보 신고 시스템 운영 여부, 가이드라인 공개 여부 및 내용, 오보 발생에 대한 사후 조치 이행 여부 등 오보 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둘째, 방송산업 내 비정규직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고충 상담·처리 지원 제도 운영 여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비정규직 비율 등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한다.

그 외 지역방송사업자의 지역성을 구현한 프로그램 편성 관련 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 수상 실적에 대한 평가 척도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방송평가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방미통위는 또한 규칙의 평가 항목 및 척도를 세부적으로 정한 ‘방송평가 세부기준’을 정비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대상 사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방송사업자가 수중계*한 프로그램 관련 자료 등 방송평가 자료 제출 방식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다른 방송사의 송출 내용을 받아 그대로 방송

이번 규칙 개정안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달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세부기준 정비와 자료 제출 방식 개선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 의견수렴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노력 등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주 (02-2110-1280)
		담당자	사무관	신동재 (02-2110-1267)



1. 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직 명칭 등을 정비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방송평가의 실효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
- 기존에 위촉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개정 규칙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명시

나. 공정성 관련 방송사 자율규제 제도 평가 강화

- 방송사의 자율적인 공정성 강화 노력 제고를 위해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 제도(회의체) 운영 평가척도를 회의 개최 횟수, 책임자 참석여부, 회의 결과 사내 공개여부, 논의 결과 이행여부 등으로 구체화

다.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강화

- 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 또는 채널의 공정성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을 확인하여 반영·개선할 수 있도록,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의 평가척도에 공정성 관련 시청자 인식조사 포함여부 추가

라. 팩트체크 노력 평가(가점 10점) 신설

- 팩트체크를 통한 사전 오보 방지와 오보 발생 시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 방송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체계 운영여부, 가이드라인 공개여부·내용, 오보 신고 시스템 운영여부, 오보 발생에 대한 사후조치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가점 부여

마.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10점) 신설

- 방송산업 내 비정규직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고충 상담·처리 지원 제도 운영여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비정규직 비율 등 평가

바. 지역 지상파TV의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방식 개선

-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전체방송시간 대비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KBS1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별 만점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도록 명시

사. 심의제재 사전지적 평가 방식 개선

- 방미통위 심의제재 건 중 방송사 자체 심의를 통한 ‘사전 지적 비율’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이 심의제재가 적은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불합리 해소를 위해 ‘사전 지적 누락 건수’ 평가로 개선

아.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척도 명확화

- 평가대상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척도를 시상기관, 상 등급, 상 역사성, 평가기간 등으로 구체화

자. 그 외 별표 조문 정비

- 사업자군별 평가항목 배열 통일, 평가항목명 정비 등